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73
----------	-------

발의연월일 : 2022. 3. 14.

발 의 자 : 조경태 · 조수진 · 구자근
서병수 · 김용판 · 조명희
하영제 · 백종헌 · 정경희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함)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2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제30조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u>징수할 수 있다.</u>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 ----- ----- ----- ----- <u>징수한다.</u>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300만원</u> ----- ----- --. ③ (현행과 같음)